

2023. 8. 28.(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8월 27일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: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

주거환경개선과장

오장환

2133-7240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: 3쪽

안심집수리지원팀장

김선호

2133-7259

서울시, 915(금)까지 노후 주거환경 개선할 '안심 집수리' 희망가구 모집

- 중위소득 70% 이하 거주 노후 저층주택·반지하 주택 대상... 자치구 통해 신청
- 상반기 두 차례 모집, 현재 337가구 수리 중... 주택 노후도 등 고려해 최종 선정
- 주택성능 개선, 안전·편의시설 설치 등 공사비의 80%, 최대 1,000만원 지원

-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‘안심 집수리 보조사업’의 1~2차 참여자를 모집, 현재 337가구가 수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세 번째 사업참여 가구를 모집한다.
- 서울시는 8.28.(월)~9.15.(금) ‘안심 집수리 보조사업(3차)’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.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▲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% 이하 취약가구 거주 주택 ▲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.
- 저층주택에는 단독주택(다중·다가구 포함), 공동주택(다세대·연립)이 포함되며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중증 장애인, 65세 이상 고령자, 다자녀가족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 등이 해당된다.

- ▲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%, 최대 1,000만원까지
▲반지하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%, 최대 6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.
- 단열·방수 등 주택성능 개선, 침수·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, 내부 단차 제거·안전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집수리 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.
- ‘안심 집수리 보조사업’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(신청서 및 첨부서류)를 제출하면 된다.
-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,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, 반지하 주택의 경우에는 ▲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 ▲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▲건물 및 주거환경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.
-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, 집수리 후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-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“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‘안심 집수리 보조사업’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〈첨부 1〉

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절차

○ 지원 및 결정 단계



○ 공사 및 지급 단계

